

## 산자부, 중국·ASEAN FTA 발효에 따른 산업부문별 대응방안 점검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범)는 지난 4일 '중국·ASEAN FTA 관련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공업협회 등 9개 주요 산업별 단체들은 중국·ASEAN FTA가 소관 산업의 대(對)중국, 대(對)ASEAN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내용에 따르면, 전자(CRT·세탁기·송신기기 등), 기계(발전기·기타 전기장비), 섬유(직물 등 원부자재), 정밀화학(염료·안료·도료 등), 철강(H형강·봉강·열연강판 등), 석유화학(PVC)의 경우 협정·비협정국 간 차별적 관세 적용에 따라 기존 수출 경합품목들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은 WTO ITA(정보기술협정) 등으로 이미 무관세화됐거나 중국·ASEAN과의 기술격차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각 산업별 단체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차별화, 조기 시장선점, 현지생산 확대 등을 제시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한-ASEAN FTA 협상의 내실화 및 조속한 타결을 희망했다. 산자부는 각 산업별 대응방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KOTRA 등을 통해 FTA 체결당사국 동향과 일본, 대만, 인도 등 경쟁국들의 대응동향을 수집해 제공하는 등 업계의 대응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산자부는 이날 회의결과 등을 토대로 중국·ASEAN FTA와 우리 수출 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는 해설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무역연구소 주관으로 중국·ASEAN FTA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8월 29일 무역센터에서 개최키로 했다.

## 정통부, IT산업 기반 부품소재 육성 시동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가 휴대전화 등 IT제품 국산화를 제고와 향후 세계시장을 주도할 원천·기초기술 확보를 위해 IT분야 부품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해당분야로선 사상 최대 규모인 577억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에 나선다. 이번 육성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70~74%대에 머물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국산화율 등 주요 IT제품의 국산화율이 상당부분 높아지고, 향후 세계 IT시장을 주도할 원천·핵심기술도 상당수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특히 IT산업 육성을 위한 현행 IT839전략 이후를 겨냥한 중장기 전략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형 민간 기업이 대거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관련, 첨단 휴대전화 단말기의 관련부품 등 주력 수출품목과 부가가치 창출이 큰 핵심 칩 등 미래 IT시장 진출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부품소재 지원 예산을 올해 383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577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미 과학기술부 혁신본부 1차 조정을 거쳐 기획예산처에서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육성대상 분야를 선정,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갈 방침이다.

## 중기청, 환경규제 대응방안 전국 순회 교육 실시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과 삼성 등 대기업과 공동으로 8월 9일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5개 지역을 순회하며 '환경규제 대응방안 순회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달 발족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합동지원단'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순회 설명회에서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제품분석비용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장비 무료이용개방제도' 등 환경규제대응 관련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연계 활용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오는 2006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이 제한하는 '6대 유해물질(납, 수은, 6가크롬, 카드뮴 및 브롬계 난연제)'의 정밀분석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국제환경규제에 선도적 대응능력을 갖춘 삼성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인 환경규제 대응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의 환경 담당자들이 환경규제 동향 및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최신 유해물질 분석 노하우를 획득하는 한편 선도기업의 환경규제 대응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교육 및 세미나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날로 강화되는 국제환경규제에 지방 중소기업들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 내 벤 처 PMP 기 술 개 발 주 도 , 특 허 출 원 9 5 % 차 지**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PMP 관련 특허출원이 2001년 22건에서 2002년 26건, 2003년 44건, 지난해 66건 등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 PMP 관련 특허는 국내 기업이 전체 출원건수의 95%인 170건, 외국기업은 5%인 8건을 출원해 국내기업이 PMP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인콤, 인터에프씨 등 국내기업은 휴대용 멀티미디어플레이어(PMP) 기술개발로 주목받고 있고, 미래에이브이는 지리정보와 네비게이션 장치가 들어있어 차량용 텔레매틱스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는 PMP를 개발해 지난해 12월 특허 등록했다. 또한 인터에프씨는 USB를 이용해 PMP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기술에 대해 지난 5월 특허 등록했다. 전자부품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PMP시장은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350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 진 공 , 중 기 미 래 신 용 추 정 시 스템 개 발 추 진**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홍경)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의 미래가치 및 채무상환능력을 예측하는 '중소기업 미래신용 추정시스템'을 개발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접대출 및 신용대출 확대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금융지원체계 개편 보고회의'에서 강조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업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미래 예측력을 향상시키고자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중진공은 신용평가시장에서 기업평가 모델링 전문가로 알려진 이화여대 신경식 교수와 공동 개발을 추진 중으로 올해 말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에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 등 일반금융기관과는 달리 금융지원이 단기가 아닌 장기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담보 중심이 아닌 신용대출형태가 점차 확대되는 만큼 과거 재무실적이나 현재의 신용도보다는 미래 기업가치평가 및 향후 기업이 창출할 현금흐름을 감안한 사업성평가와 채무자의 미래 상환능력, 부실화가능성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개발코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기업평가시스템을 계속 고도화·선진화시켜 나감으로써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직접대출 비중 증가로 인한 부실 최소화와 정책자금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 북 도 , 하 반 기 벤 처 기 업 육 성 자 금 3 0 억 원 지 원**

경상북도(도지사 이의근)는 하반기 국내경기침체, 고유가지속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기업 육성자금 30억원을 지원한다. 경상북도는 지난 1999년 이후 73개 업체에 9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융자지원 금액은 업체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등 총 3억원이며, 융자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연리 3%의 장기 저리로 지원된다. 지원대상 업종은 경상북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테크노파크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IT SoC 창업보육기업 모집 공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정보통신 SoC 선진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SoC 핵심부품 기업을 8월부터 매월 20일까지 모집한다.

### ■ 개 요

- 주 최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78번지 IT벤처타워
- 신청자격 : SoC(System on a Chip) 분야의 제품, 부품, 관련 IP, Embedded SW 개발기업으로 창업 2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이나 예비창업자(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 조건) 단, 타 기관 보육시설 입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업은 제외함

### ■ 주요내용

- IT-SoC 창업지원보육실 시설 현황
  - 보 육 실 : IT 벤처타워 동관 3층, 5층
  - 보 육 실 (이용면적 35,45,50평 등 4실)
  - 지원시설 : EDA 설계실, 반도체설계 IP, 각종 시험장비, 칩 시험실 등
- 지원내용 : SoC 설계환경, 시제품제작, 칩 시험환경, 시제품 H/W 실험환경, SoC 기술·경영정보 제공, 설계전문인력 재교육, 산학공동연구 지원,

기타 공용시설 및 집기 지원

### ■ 입주기간 및 입주시기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2년
- 입주예정 시기 : 8월~12월 30일까지

### ■ 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05년 8월부터 매월 20일까지 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79-2번지 KIPA 빌딩 11층, IT-SoC사업단 SoC7반경영팀
- 문 의 : 02-2141-5661
- 제출서류 : IT-SoC 사업단 창업보육지원실 입주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예비창업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사업능력평가서, SoC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계획서(소정양식) 1부, 사업계획 및 제품개발 계획 발표자료 1부(입주신청서 서식 및 안내 [www.software.or.kr/itsoc](http://www.software.or.kr/itsoc))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기술 및 사업성 심사), 2차 사업계획 발표 및 선정 심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해 매월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함

## 제6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안내

### ■ 개 요

- 일 시 : 2005년 8월 29일(월)~9월 1일(목), 4일간 ※ 개막식 및 시상식 : 8월 29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
- 주 최 : 중소기업청
- 주 관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산학연전국협의회,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 행사내용

- 주요행사 : 우수혁신기술전시회, 기술혁신상 및 유공자 포상, 부대행사(2005 APEC 비즈니스 상담회, 해외기술설명회, 중소기업기술혁신세미나, 중소기업 사업화유망 기술이전 설명회(텍컴마트21), 기술혁신 소그룹 경진대회)
- 초청대상 : 관련업체 종사자, 해외 바이어, 국내외 투자자 등

## 한국여성벤처협회 8개사 신규회원 추가

한국여성벤처협회는 남영자동차공업 등 8개사를 신규회원으로 맞이하였다. 신규회원은 미즈워드, 고감도, 아이엠디플러스, 지암메디테크, 남영자동차공업, 세작, 비즈키즈, 유럽피안 등 8개 업체이며, 이 중 남영자동차공업(대표 정은숙)은 소방차를 제조하는 업체로 작년 매출액만 178억 1천만원에 이르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도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대표명	업체명	주요사업
박희옥	미즈워드	온·오프 웨딩 통합서비스, 여행알선
서은미	세작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S사업, 디지털콘텐츠사업
안향자	고감도	사무환경디자인, 의료주거공간 디자인 시공
이정임	아이엠디플러스	전자상거래, 공동마케팅
전소연	지암메디테크	특수승강기 제조, 설치, 보수, A/S
정은숙	남영자동차공업	소방차 제조
조은혜	비즈키즈	어린이교육 온라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함서경	유럽피안	원단인류 머플러 수출입, 친환경접착제 내수 및 수출

### R&D 특구 본격 출범 '대덕 황금기' 시작됐다

과학산업의 메카 대덕연구단지에서 7월 28일 대덕R&D특구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의 기본 골격을 갖추고 거듭나게 됐다. 이에 따라 대덕R&D특구는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술이전 및 창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연계 촉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클러스터로의 조성이 기대될 전망이다.

특구 구성 및 인근 충남·북 시민들 간 논란이 일었던 대덕R&D특구의 구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대덕구 일부(문평동, 신일동 일원)로 한정됐다. 또 연구소 기업은 당초 발표됐던 대로 지적재산권·노하우·현금·부동산·연구시설 및 기자재 등을 출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익금은 재출자하거나 연구비 등으로 사용 가능토록 했다. 특구 육성을 통해 대덕은 벤처기업 및 연구소 기업의 증가로 연 5천명 이상의 고용창출, 오는 2015년 특구 내 기업 매출액이 30조원, 기술료수입 5천억원, 국제특허등록이 1만 6천건, 외국연구기관 20개, 나스닥 상장기업이 20개에 달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정부는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와 생활여건 개선으로 외국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를 통해 국제적 R&D중심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10년 내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09년까지 1천억원, 2015년까지 3천억원 규모의 투자펀드가 조성되고 유성구 신일동 일원에 100만평 규모의 신규 벤처타운이 대덕테크노밸리와 연계, 친환경적으로 개발된다. 그러나 미온적인 정부 및 과기부의 특구 정책추진에 대해 특구 구성원들의 원성이 높아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덕R&D특구 한 관계자는 "특구 이사장 선임은 물론 예산이나 조직구성, 기존 조직과의 통합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특구의 '총 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이사장 선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7월 29일 대덕컨벤션센터에서 대덕R&D특구 특별법 시행에 따라 특구의 출범을 홍보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 출범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VD Scrap

**벤처 CEO 77% "휴가 아예 안 갈 것"**

전국벤처협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벤처 CEO들의 77%가 휴가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벤처 CEO들이 휴가 대신 업무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중소기업 CEO들은 휴가 계획이 없는 경우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에게 여름은 없다**

▲ 2005년 8월 5일 중앙경제 3면  
벤처 CEO들의 77%가 올 여름 휴가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가운데, 협회가 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에서 개최한 '벤처 CEO 섬머포럼'이 휴가를 가지 못하는 CEO들의 '유사휴가'로 큰 호응을 얻었음을 보도한 기사.

**엔젤투자 다시 기지개**

코스닥 막에 벤처를 끌어내려라 - 엔젤투자 다시 기지개

코스닥에 벤처를 끌어내려라 - 엔젤투자 다시 기지개

엔젤투자는 벤처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를 의미하며, 이는 벤처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엔젤투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고, 이는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 2005년 8월 10일 한국경제 A14면  
개인투자조합이 2001년부터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지난해 증시침체로 인해 벤처에 대한 개인투자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지만, 올해 중소기업청에 4개의 개인투자조합이 등록하고 그 규모도 24억여 원에 이르는 등 벤처에 대한 개인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